

Acetone, 2월 700달러대 폭등!

미국 벤젠가격 폭등으로 ... 한국 오퍼가격 상승으로 강세 지속

Acetone 가격이 2월 들어 톤당 700달러가 넘게 폭등하고 있어 내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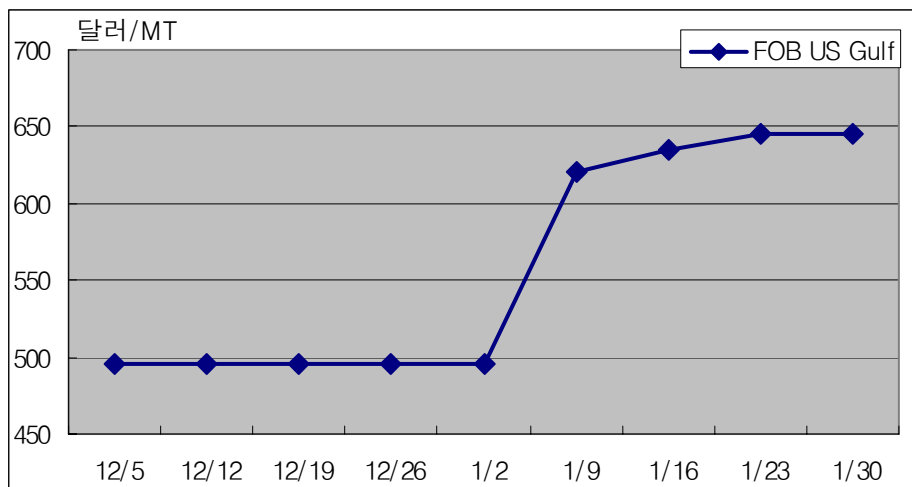
Acetone 무역상들은 “최근 일부 플랜트의 트러블과 미국의 Benzene 가격이 폭등해 원재료인 Cumene 생산량이 줄고 공급이 타이트함에 따라 중국의 춘절이 끝난 2월 첫주 중국 거래가격이 톤당 700달러 넘게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Benzene 가격은 2월 USCP가 갤런당 198센트로 26.5센트 폭등해 Acetone의 원재료인 Cumene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3년 12월 국내 Cumene 생산기업인 금호P&B화학도 수급에 다소 차질을 빚어 Acetone Shortage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Acetone은 중국의 춘절 이후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폭등이 이미 예상된 바 있는데, 무역상들도 톤당 700달러가 중국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다소 의견차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700달러에 구매함에 따라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돼 일본에서 수입되는 국내 Acetone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Acetone 가격추이(2003)



국내 Acetone 시장도 공급이 타이트 상황으로 일본 오퍼가격도 상승될 것으로 보여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Cumene 생산량도 2004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일본의 Acetone 공급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Acetone 생산기업으로는 금호P&B화학이 유일하며, 두산상사가 일본 Mitsui Chemicals의 Acetone을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Acetone은 이태리 Polymeri가 로딩포트 문제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Shell Europe과 Ineos Europe이 2004년 들어 Propylene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Operation을 조정해 Acetone 가격폭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3>